인싸의 시장 관찰 기록 — 2026-10-27 (화요일)

이 기록은 한국과 미국 시장의 주요 지표를 매일 모아, 그 '변화'를 포착하고 그 의미를 읽으려는 시도입니다. 경제 기사를 자주 보지 않는 분도 따라오실 수 있게, 용어는 처음 나올 때 풀어 쓰고 숫자에는 맥락을 붙였습니다. 수집 시각은 10월 27일 밤 9시 8분(한국 시간)입니다.

[오늘의 한 줄]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이 나스닥 상장을 신청하며 수익 개선을 보였다는 소식에 반도체 불안이 누그러지며, 코스피가 3.09% 급반등(5,638.34)해 하루 만에 5,600선을 되찾았습니다. 개장 7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지수 급등 시 프로그램 매수를 잠시 멈추는 장치)가 발동됐고, 외국인이 2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확인된 데이터]

■ 한국 시장 (10/27 정규장 마감, 오후 3시 30분)

왜 보는가: 하루 시장의 결론이자, 아래 모든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 코스피 5,638.34 (+168.87, +3.09%). 장중 5,737.61(+4.90%)까지 올랐습니다. 10/19 이후 하루 걸러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코스닥 743.83 (+16.62, +2.29%). 사흘 연속 하락을 끊었습니다.
- 삼성전자 222,000원 (+4.23%), SK하이닉스 1,341,000원 (+5.18%), 삼성전기 1,201,000원 (+7.42%). 앤트로픽발 반도체·부품주 강세입니다.
- 전력기기 3종: HD현대일렉트릭 450,000원 (+0.67%), 효성중공업 1,914,000원 (+3.29%), LS일렉트릭 158,100원 (+3.40%).
- 기사로 확인된 배경: 앤트로픽(OpenAI의 경쟁사로, 클로드 모델을 만드는 회사)이 나스닥 상장을 신청하면서 공개한 자료에서 수익 개선이 나타났고, 이것이 'AI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완화했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습니다.
출처: 네이버증권(m.stock.naver.com), 연합뉴스 마감 종합(16:05)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7146100008, 머니투데이 https://www.mt.co.kr/stock/2026/10/27/2026102715521372601

■ 오늘 누가 사고팔았나 (한국거래소 오후 3시 35분 집계)

왜 보는가: 급등일에 누가 샀는지가 반등의 질을 가늠하게 해 줍니다.
- 코스피: 외국인 +5,913억원 순매수(2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 기관 +2,804억원 순매수(증권사 등 금융투자 +1,620억원, 투자신탁 +1,804억원), 개인 -9,478억원 순매도, 기타법인 +744억원. 눈에 띄는 점: 연기금 등은 -1,265억원으로, 그간의 방어와 달리 오늘은 오르는 시장에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 코스닥: 외국인 +245억원, 기관 +1,502억원, 개인 -1,659억원, 기타법인 -34억원.

- 누적(9/23부터 21거래일, 네이버 종가 기준 자체 집계, 근사치): 외국인 순매도 누적이 코스피 약 27.9조원, 코스닥 약 7,800억원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투자자별 매매동향 표(15:37)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7139200008
※ 머니투데이가 인용한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합산 수치(외국인 +8,359억원 등)는 넥스트레이드(대체 거래소) 물량까지 포함한 별도 기준입니다.

■ 미국 시장 (10/26 월요일 마감 - 한국보다 반나절 늦게 끝나는 시장이라 항상 전날 밤 값입니다)

왜 보는가: 오늘 한국 반등의 직접적인 방아쇠가 된 밤사이 흐름입니다.
- 나스닥 종합 26,169.38 (+0.82%), S&P500 7,676.77 (+0.70%), 다우 52,361.58 (+0.28%).
-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 미국 반도체 대표 30개사 묶음) 11,083.47 (+2.82%). 앤트로픽 소식에 이틀 연속 반등했습니다.
- 개별 종목: 엔비디아 216.00달러 (+2.39%), 마이크론 903.70달러 (+2.98%), 샌디스크 1,255.58달러 (+1.42%), 팔란티어 198.84달러 (+1.06%), 아이온큐 30.76달러 (-1.63%), 아마존 249.09달러 (+0.44%), 마이크로소프트 532.60달러 (+1.54%), 구글(알파벳) 316.80달러 (-1.06%), 메타 630.56달러 (-1.88%), 오라클 126.06달러 (-0.08%), 코어위브 55.19달러 (+1.76%), 블루아울 9.34달러 (-0.21%), GE버노바 855.12달러 (+4.92%).
출처: Yahoo Finance(finance.yahoo.com/quote/각 심볼)

■ 채권·환율·원자재 - 원유는 외교 협상 따라 출렁입니다

왜 보는가: 주식과 다른 자산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교차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원유: 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파키스탄·이란 관리들이 월요일 테헤란에서 회동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와 추가 군사 행동 사이에서 저울질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긴장이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가격은 출렁입니다. 밤 사이 브렌트유가 110달러 아래로 밀렸다가, 저녁 7시 23분 기준으로는 116.07달러(+0.22%)로 다시 오른 상태입니다(CNBC 10/27). 하루 안에 6달러 이상 오르내리는 혼조세입니다.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5.00% (10/26, 전날과 동일). 20년물 5.35%, 30년물 5.31%. 최근 7일 새 장기 국채 입찰 결과는 없었습니다(2년물 입찰 11/2 예정).
- 한국 국고채 3년 3.798% (16:06), 일본 국채 30년 3.846% (18:59).
- 원/달러 환율: 약 1,327.5원 (10/27, Yahoo 일봉 기준. 10/26에는 1,321.8원).
- 선물(밤 9시 수집, 진행 중 세션 값): 나스닥100 선물 29,553.75 (+0.40%), 닛케이 선물 63,885 (+1.59%), WTI 원유 101.08달러, 금 4,026.10달러 (-0.30%).

- 미국 항공유·경유 주간 통계(EIA)는 10/28에 새로 발표됩니다(직전 10/21 발표분: 항공유 4.632, 경유 5.265달러/갤런).
출처: 미 재무부 일일 금리(home.treasury.gov), TreasuryDirect, 네이버증권, Yahoo Finance, CNBC 10/27 (cnbc.com/2026/10/27/oil-today-iran-us-crude-wti-brent-trump.html)

■ AI 가격 신호 3종 (10/26 미국 마감 기준)

왜 보는가: 'AI 투자 열기가 식고 있는가'를 뉴스가 아니라 가격으로 확인하기 위해, 세 갈래로 나눠 봅니다.
1. 반도체 대 시장 전체의 괴리: 최근 20거래일 동안 반도체지수(SOX)는 -11.08%, 나스닥은 -2.43%. 괴리가 -8.7%p로, 지난 기록(-10.8%p)에서 2%p 넘게 좁혀졌습니다. 반도체가 이틀 연속 시장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계산: Yahoo 일별 종가 기준]
2. 빅4 대 취약 사업자: AI에 큰돈을 쓰는 초대형 4사(마이크로소프트·구글·아마존·메타)의 6개월 최고가 대비 평균 낙폭은 -13.6%(MS -2.0%, 구글 -21.3%, 아마존 -12.3%, 메타 -18.9%). 빌려 쓰고 빌려주는 쪽 3사(오라클 -49.2%, 코어위브 -60.0%, 블루아울 -26.2%)는 평균 -45.1%로 그대로입니다. 반도체는 반등했지만 '돈줄 사슬'의 주가는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산]
3. 나스닥 고점 대비 낙폭: 현재 26,169.38로, 52주 최고 종가(10/6, 27,599.79)보다 -5.18%입니다. 관례적 조정선(-10%)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계산]

[판단]

- 오늘 반등의 방아쇠는 앤트로픽이라는 구체적인 소재였습니다. 'AI 회사가 돈을 못 벌 것'이라는 공포가 이 시장 하락의 한 축이었는데, 상장 신청 자료의 수익 개선이 그 공포를 직접 건드렸습니다. 반도체-나스닥 괴리가 -8.7%p로 좁혀지고 외국인이 돌아온 것도 같은 방향의 움직임입니다.
- 다만 이 기록이 미리 정해 둔 완화 조건(괴리 -5%p 안 + 외국인 3거래일 연속 순매수)에는 아직 못 미칩니다. 외국인 매수는 이제 하루째이고, 괴리도 절반쯤 좁혀졌을 뿐입니다. 연기금이 오늘 물량을 덜어낸 점, 개인이 9천억원 넘게 판 점도 반등의 질을 낙관하기 어렵게 하는 대목입니다.
- 현재 위치는 '위험 회피' 판단을 유지하되, 어제보다는 완화 쪽에 한 걸음 가까워진 상태로 기록합니다. 근거는 (1) 괴리 축소와 외국인 복귀가 조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점, (2) 그러나 취약 사슬(오라클·코어위브) 주가는 회복하지 못해 AI 금융 압력은 그대로인 점, (3) 원유가 외교 협상에도 116달러의 높은 수준에 머무는 점입니다.
- 이 판단이 바뀌는 조건: 괴리가 -5%p 안으로 좁혀지고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 '중립'으로 완화하겠습니다. 반대로 나스닥이 52주 고점 대비 -10%에 진입하거나 빅4 평균 낙폭이 -20%를 넘으면 강화하고, 브렌트유가 120달러 위에 안착하면 물가 충격 경로로 강화하겠습니다.
- 이 내용은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종목의 매매 지시도 아닙니다.

[복기]

만기가 온 지난 판단을 실제 값과 대조합니다.
- 10/20 판단: "코스피 종가가 5,768.01 아래일 것" (T+5, 10/27 검증) → 실제 종가 5,638.34. 적중.
- 10/26 판단: "코스피 종가가 5,469.47 아래일 것" (T+1, 10/27 검증) → 실제 종가 5,638.34로 168.87포인트 위. 빗나감.
- 해석: 7개월 최저 다음 날의 3% 급반등은 T+1 판단이 감당하기 어려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반대로 T+5 판단은 반등일에도 기준(5,768.01) 아래에 머물며 적중했습니다.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의 적중은 방향성 확인에 그치고, 오늘처럼 재료가 바뀌는 날의 빗나감이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준다는 한계를 함께 기록합니다.
- 오늘의 새 판단 기록: "코스피 종가가 5,638.34 아래일 것" - T+1(10/28, 수)과 T+5(11/3, 화)에 각각 검증합니다.

[AI 위험 v1]

AI 투자 열기의 균열을 미리 잡기 위해 정해 둔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
- A. AI 기업의 자금조달 실패·철회 (최근 30일 2건 이상): 미확인 - 실패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앤트로픽이 나스닥 상장을 신청한 것은 반대 방향의 소식입니다.
- B. AI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통보 또는 지급유예: 미충족(기간 만료) - 9/24 Project Jupiter 사건의 30일 유효 기간이 10/24에 끝났고, 새로운 불가항력·지급유예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C. 사모대출 운용 3사(APO·KKR·BX) 중 2사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20% 이하: 충족 - APO -20.3%, KKR -20.5%, BX -20.3%. 3사 모두 -20%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26 종가) [계산]
- D. 엔비디아 또는 삼성·SK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AI 칩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 실적 전망 하향: 미확인 - 확인된 하향 공시가 없습니다.
- E. 전력 인프라 4종(GEV·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중 2종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30% 이하: 충족 - HD현대일렉트릭 -68.3%, 효성중공업 -58.4%, LS일렉트릭 -50.4%. GE버노바는 -27.2%로 -30%선 위로 올라와 4종 중 3종 충족입니다. [계산]
- 종합: 충족 조건은 C·E 2개('3단계' 해당). A·D가 미확인이라 확정 단계는 유보합니다(가능 범위 3~5단계). 오늘 시장은 크게 올랐지만, 이 표의 조건들은 하루 반등으로 바뀌지 않을 만큼 이미 깊게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 이 표의 임계값은 미리 정해 둔 편집 기준이며, 통계적으로 검증된 예측치가 아닙니다.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끝)